

# 미술·과학의 '즐거운 만남'

도립미술관, '예술과 에너지'展  
내일 오후 과학실험 퍼포먼스 등  
공연·전문가 강연 선보이기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미술과 과학의 만남 '예술과 에너지'展과 연계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에너지-과학으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 및 강연을 선보인다.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 1부에는 과학퍼포먼스인 프록슨 브레이크의 '미술 같은 과학실험'과 2060 로봇 흡수핑의 유머러스한 과학코미디를 시작으로 정혜심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가까이에서 바라보기-미시세계' 강연이 열린다.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턴의 인생3법칙의 3장르 음악을 선보이는 힐링 과학 라디오를 시작으로 '먼 곳에서 바라보기-거시세계' 강연이 이어진다. 전북도립미술관 관계자는 "미술과 과학의 이색적인 만남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로 지친 도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관람객은 입장 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인적사항 기재, 손 소독, 발열검사를



전북도립미술관 '예술과 에너지'展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 뉴턴의 인생3법칙의 3장르 음악을 선보이는 힐링 과학 라디오를 선보인다.

한 뒤 안내 동선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개인 관람 및 단체 관람(30인이하)이 가능하며 전시 해설 서비스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예술과 에너지'展은 홈페이지(www.jma.go.kr)에서 전시 관람예약을 한 후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체험 및 공연 전화예약은 주중에만 전화(063-290-6888)로 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대 박물관 '열려라 수장고' 프로그램 다시 오픈

코로나 1단계 완화에 따라... 수장고 보관 전라감영 책판·고문서 등 관람

전북대 박물관(관장 조대연)이 사회적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전시실을 개방, '열려라 수장고'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대 박물관 전시실 내부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국립대 육성사업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지난해 시행했던 수장고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열려라 수장고'는 보관된 전라감영 책판(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4호)과 다양한 고문서를 관람하고 소장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체험을 통해 배우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여 및 대학자원 공유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사회적 문화체험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장고 관람은 11월부터 내년까지 지속 운영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회, 오후 1회로 한정한다. 학생과 지역민이 대상이며 1회 관람(40분) 시 인솔자 포함 5명으로 제한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접수를 운영하며 일정은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안전을 위해 발열 체크·방문록 작성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신청은 전북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2552)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2020 태권도봉사단' 단원 모집

16일까지... 내년 1~2월 중, 10여개국에 100여명 파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태권도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될 '2020 태권도봉사단' 단원을 모집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100여 명의 태권도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6일 오전 9시까지 자료 모집 공고 등 상세한 내용은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대한민국의 해외여행 가능자 중 태권도 2단(품) 이상 보유자로서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등 태권도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가능자는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18일 면접시험 대상자를 발표하고 11월 중 태권도원(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25일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으로 선발된 태권도봉사

단원들은 내년 1월 안으로 태권도 봉사활동에 필요한 태권도 지도법, 한국 문화 소개, 해외 안전지침 등의 교육을 진행한 후 해외 10여 개국에 파견되어 태권도와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욱은 "태권도봉사단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태권도를 알리는 문화 사절단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태권도를 통해 국익에 도움 되도록 철저한 교육과 제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2020 태권도봉사단' 파견 국가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대사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과 협조를 통해 파견국 수요 파악 및 추천 과정을 거치는 등 코로나19 상황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문화원 민화그리기반, 벽골 미술대전 '입상'

최근 (사)한국미술협회 김제지부가 주최하고 벽골 미술 대전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제21회 전국 벽골미술대전에서 장수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민화그리기반 이운경(47)씨가 우수상을 서인애, 이숙희(특선), 유명미, 신순원, 이옥이(입선)씨가 수상했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민화,도자기) 부문으로 전국 각지에서 작품이

출품 되어 경합을 벌였는데 민화부분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이운경 씨는 작년 제20회 전국 벽골 미술대전에서 특선과 제21회 전주 전통공예 전국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장수문화원 문화학교강좌 민화그리기반 수강생으로 입문 후, 본인의 재능을 발견, 지금까지 수강생으로 참여하면서 틈틈이 대회를 준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정읍 전국 실버영화제' 성료 최우수작 '공동구역' 등 수상

전북영상협회와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정읍지부, 전북과학대 방송연예미디어과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제15회 정읍 전국 실버 영화제'가 지난 3일 연지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영화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영화로 표현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최초로 정읍에서 시작된 실버영화제는 참가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작품을 형식 등의 제한 없이 응모를 통해 진행되는 전국 공모전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24편이 접수되어 공정한 작품심사를 거쳐 16편의 영화가 본선에 올랐다. 최우수 작품에는 서영조 감독의 '공동구역', 우수상에는 김길수 감독의 '달레마'와 신명성 감독의 '갈비탕'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로 시상식만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영화제 관계자는 "정읍 전국실버영화제는 노인 문제로는 전국 최초로 개최된 영화제로 작지만, 전통이 있는 영화제"라며 "정읍 실버영화제가 전국적인 노인 영상축제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강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세 가지 꿈 '자아 찾아 떠나는 여행'

내일 저녁 팔복예술공장서 '토리밴드' 공연  
전주 신진예술가 7기 지원사업 선정작



(재)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전주 신진예술가 7기 지원사업 선정작인 유인하(토리밴드)의 공연 '세 가지 꿈: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7일 저녁 7시 30분 팔복예술공장 B동 이팔나무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세 가지 꿈'은 미디어파사드와 토리밴드의 라이브가 함께 진행되는 공연으로, 한 아이가 꿈을 꾸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한 아이가 어떤 꿈을 연속해서 꾸는지, 그리고 그 꿈은 자아라는 큰 주제 안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공연을 즐기는 관객 포인트다. 유인하 씨는 "전주문화재단의 신진예술가 지원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다"며 "표현하고자 했던 주

제가 관객들에게 음악·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다가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씨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미디어파사드뿐만 아닌 더욱 재미난 공연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7회를 맞은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전주의 유망한 청년예술가(만 20세 이상~만 39세 이하)를 발굴해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토양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063-283-922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웅진중학교는 비보이팀인 '라스트포원'이 지난 4일 'One Dream'이라는 주제로 본교 체육관에서 공연을 벌였다.

## 비보이로 표현하는 'One Dream'

라스트포원, 웅진중 체육관서 공연

웅진중학교는 비보이팀인 '라스트포원'이 지난 4일 'One Dream'이라는 주제로 본교 체육관에서 공연했다고 5일 밝혔다. 라스트포원은 2005년 비보이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 메이저 대회인 독일 배틀오브더이 어 우승, 2014 전주 비보이그랑프리 배틀 대회에서 우승, 2015 프랑스 TROPHÉE MASTER WORLD FINAL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비보이팀으로 현재 전주시 흥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우리

나라 공연예술의 아름다운 아름다움과 전통예술, 태권도,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을 지켜가며 열정이 넘치는 공연을 관람했다.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비보이를 하고 있는 1학년 학생은 "도전, 노력, 열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3학년 학생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고의 팀이 된 '라스트포원'의 이야기와 공연을 보며 감동되었고, 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사회 필수서비스 노동자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서 업무 특성상 대면 노력이 필요한 보건의료·환경미화·돌봄서비스·배달업 등의 필수노동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이다. 전북유권자연맹 라은희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센터는 다음 릴레이 주지로 전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의전화를 지명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운애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사회 필수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센터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